

사회

등록금 벌기 너무 힘들어요

방학하자 알바 구슬땀 남녀 대학생 채소판매 1일 4만원·학원 허드렛일 月 30만원 자격증 취득·'스펙쌓기'는 엄두도 못내

“방학 시작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나 스펙을 챙길 시간은 아예 없어요.” 최근 방학을 맞은 목포대 3학년 추모(25)씨의 하루는 학기 때 보다 더욱 바쁘다. 방학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해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추씨는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 동안 일을 하고, 시간당 4650원씩 총 4만2000원 가량을 번다.

국립대생인 그는 “사립대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으로 한 학기에 500만원 이상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욱 어려운 처지라는 것.

아르바이트 때문에 자격증 시험 준비나 학과 공부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추씨나 친구들이나 마찬가지다. 하루 9시간 이상 선 채로 일을 하고 나면 몸을 가눌 힘조차 없다.

아르바이트가 힘에 부치고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위한 일명 ‘스펙쌓기’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등록금 때문에 쉽사리 일을 그만두기도 어렵다. 학자금 대출 ‘빚’에 고민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또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반값 등록금’ 열풍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추씨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학교 측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무조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며 “등록금으로 인한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낸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행정학과 3학년인 박소진(여·21)씨는 학기 내내 했던 아르바이트를 방학에도 계속하고 있다.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 근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학원 안팎을 청소하고 수업 보조를 하고 있다. 하루 다섯시간, 일주일 3일 정도를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30만원. 이 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박씨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다.

하루 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씨는 남들이 뒤쳐지지 않기 위해 귀가 후, 파김치가 된 몸으로 또 공부한다. 그가 처음부터 등록금을 직접 벌었던 것은 아니었다. 1학년 때는



목포대 추모(25)씨가 마트에서 양배추를 진열하고 있다(위). 전남대 박소진(21)씨가 학원에서 책장 정리를 하고 있다.

부모님께 대학 등록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여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2명의 등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에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세 번이나 받았고, 이로 인해 졸업 후 갚아야 할 빚은 550만원이 넘었다. 매년 갚아야 할 대출금과 앞으로 내야할

등록금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도서관에서 망둥고 공부하고 싶다는 그는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반값 등록금도 비싸다”고 호소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재성 부장판사 피고인석에

“파산업무 기업회생 재량 인정돼야”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가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4일 2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검사·변호사·피고인들의 모두 진술과 검사의 증거신청 등이 1시간10분간 진행됐다. 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강도 변호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최모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임했다.

선 부장판사는 첫 진술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로 기소한 주선투자는 광주 유망산업인 관광업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였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공소사실을 적용한 시점) 이전에 투자가 모두 끝나 공소사실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도 “파산부 업무는 재판보다 경영 측면이 강조돼 기업 회생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판단하고 재량도 인정돼야 한다”며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선 부장이 재판장을 맡은 사건을 강 변호사가 수임한 건수, 주석거래 확인서, 강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각각된 다음날 휴대전화를 교체한 기록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240건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고교·대학 동문인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5000만원을 투자해 1년 뒤 1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350) 김종두



오현섭 전 여수시장 항소심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4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또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수수액 규모도 총 7억원이 넘는 거액임에 따라 중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벽 전당포에 2인조 강도

노부부 위협 1000만원 털어

남구 월산동서

광주의 한 전당포에서 노부부를 상대로 한 2인조 강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에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전당포에 2인조 강도가 침입, 전당포 주인 부부인 나모(72)씨와 김모(여·69)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500만원과 중금품 등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나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 뒤 ‘밖에 내다 놓은 물건들 가

져가도 되는냐’고 물어 문을 열어줬는데, 강도범들이 집안으로 쳐들어왔다”고 진술했다. 30~4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흰색 우의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령인 나씨 부부의 전당포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미뤄 면식범의 소행이거나 사적인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2학기 학자금 대출

6일부터 신청 접수

금리 4.9% 유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 금리는 1학기와 같은 4.9%이다. 교과부는 최근 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채권 등에서 거론되는 대출금리 인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현행 금리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돈돈학자금, ICL)을 이용하고 싶은 학생은 6일부터 9월30일까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총기 난사 4명 사망

강화 해안초소서... 2명은 부상

4일 오전 11시50분경 해병대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초소에서 김모 상병(19)이 총기를 난사해 이승훈 하사(25) 등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을 포함한 병사 2명이 부상했다.

해병대 김태은 정훈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강화도 남쪽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의 현지 경계 작전 수행부대에서 총기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사고자를 포함한 2명이 부상했다”면서 “처음엔 사망자가 3명이었으나 수도병원으로 이송 중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인 권혁 이병(19)과 사고자 김모(19) 상병은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김 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해병대사령부에서 유가족 사령관을 반장으로 사고 조사반을 편

성하고 해병 헌병과 검찰요원, 해군본부 감식관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1차 조사에 따르면 김 상병은 점심시간 직전 생활관에서 K-2 소총 여러 발을 난사한 다음 생활관을 뛰쳐나와 생활관과 떨어진 격실에서 수류탄 1발을 터뜨려 자신도 부상했다.

김 상병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린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헌병대에서 부대원 전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어서 당시 생활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초소에는 소대장을 포함해 30여 명이 근무 중이었다.

해병대 김 실장은 “총기에서 몇 발이 발사됐는지, 당시 생활관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K-2 소총의 탄창에 기본적으로 20발이 들어가는데 공포탄을 포함해서 15발을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추지지대 철근 도둑

최근 광주지역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지지대용 철근 절도사건이 끊이지 않아 농가와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 화장동 윤모(여·53)씨의 비닐하우스에 보관돼 있던 고추 지지대용 철근(지름 1.2cm·길이 180cm) 수백개를 누군가 훔쳐가는 등 절도 단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7~8곳에 비닐하우스 10개동이며, 피해액은 최소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부산저축銀 비리 내사 순천 변호사

행방 묘연... 실종 신고 해프닝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SPC(특수목적법인)의 법률고문을 맡은 것과 관련, 대검 내사를 받던 중 1주일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순천의 한 변호사 가족들이 실종신고 후 이를 취소했다.

4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서모(49) 변호사의 아내가 이날 오후 3시 자신의 남편인 서 변호사에 대한 실종신고를 취소했다. 서 변호사 아내는 지난 24일 “남편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관할 지구대에 행방을 찾아달라고 신고했었다.

가족들은 서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

족이 서 변호사에 대한 실종신고를 취소한 만큼 서 변호사가 가족들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해 순천시 왕지동에 건설한 롯데아파트 시행사인(주)낙원주택건설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수억원을 받아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15일 대검 중수부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내사를 받았다.

서 변호사는 검찰에 의혹을 받고 있는 돈이 정당한 법률자문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친 변신에 연쇄 방화 20대 달미

○군산경찰은 4일 결별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삼중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이모(2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7시에 군산시내 여자친구 정모(24)씨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화하는 등 6월5일까지 정씨의 새 남자친구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을 포함해 모두 4곳에 불을 질러 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이씨는 또 지난 5월28일 오전 11시에 정씨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새 남자친구의 차를 돌로 찍어 1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는데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며, 차를 부순 장면이 찍힌 CCTV를 없애려고 관리자 무소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 /전북취재본부=박승식기자 nogusu@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중재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시험: 7월 24일 2011 7급 강의시간: 08:00 - 03:00 2개월 완성 특징: 7급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9급 종합반 시험: 9월 11일 2011 9급 강의시간: 08:00 - 03:00 2개월 완성 특징: 9급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법원서기보 시험: 7월 24일 2011 7급 강의시간: 08:00 - 03:00 2개월 완성 특징: 7급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행정소방직(전문) 시험: 7월 24일 2011 7급 강의시간: 08:00 - 03:00 2개월 완성 특징: 7급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명품 "강력단과" 시험: 7월 24일 2011 7급 강의시간: 08:00 - 03:00 2개월 완성 특징: 7급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79급 검찰직 시험: 7월 24일 2011 7급 강의시간: 08:00 - 03:00 2개월 완성 특징: 7급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9급 야간반 시험: 9월 11일 2011 9급 강의시간: 08:00 - 03:00 2개월 완성 특징: 9급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농업직/기술직 시험: 7월 24일 2011 7급 강의시간: 08:00 - 03:00 2개월 완성 특징: 7급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	--	---	---	---	---	--	---

개강 8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평면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